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장 분 자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1. 서 론

일반인들로 하여금 어떤 건강행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연구방법은 ‘지식, 태도 및 실천(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에 대한 연구(KAP study)’이다. 최근에는 믿음(belief)을 넣어 KABP 연구라고 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교육학의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 설명들의 요체는 어떤 바람직한 건강행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방법은 건강문제, 어떤 질병 또는 어떤 보건의료문제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태도 그리고 행위의 실천상태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는 보건교육의 계획 수립에 편리하고 유용한 자료가 된다¹⁾.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의 기초는 보건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derson은 공중보건을 보건사업(health service), 법규에 의한 규제(regulation), 보건교육(health education)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교육이라고 하였다. 보건교육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문제점에 중점을 둔 교육적으로 계획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의 대상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교육의 대상은 건강유지 및 증진에 필요한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학습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은 물론 가족, 산업장의 근로자, 학교의 학생 등 모든 국민이 그 대상이 된다²⁾.

가정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차적인 사회적 단위이다. 건강한 생활에

[연락처] 장분자 • (우 702-722) 대구보건대학 치위생과 겸임

전화 : 053) 636-8325, E-mail: j996026@yahoo.co.kr

대한 개인의 태도와 행위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대체로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며 전통적인 관습대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관습이란 가정의 경제수준이나 종교적인 신념, 도덕적인 관념, 질병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건교육의 커다란 장애가 되거나 바람직한 행위로 연결되어진다²⁾.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을 보살피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 전신건강 뿐만 아니라 구강건강 유지 및 증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특별한 인류학적 기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모성보건은 영유아 보건이나 소아보건을 합한 모자보건의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로서 취급되어 왔다³⁾.

따라서 한 가정의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과 행동을 조사해야만 하는 필연성이 있다.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에 관한 기존연구로는 주로 자녀와 연관지어 행해지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태도, 행동 및 신념 등이 자녀의 구강보건상태, 행동, 신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구명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Al-Omiri 등⁴⁾은 부모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자녀의 구강보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Rajap⁵⁾ 등은 자녀의 치과치료습관이 부모의 치과방문 습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학교구강보건향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구 중 류 등⁶⁾은 유아들의 구강건강에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 등⁷⁾은 수준 높은 구강보건지식과 올바른 구강보건행동을 행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구강건강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 등⁸⁾은 모친의 구강보건 지식수준이 자녀의 유치우식증 발생과 초기우식

증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⁹⁾, 최¹⁰⁾, 김 등¹¹⁾, 공 등¹²⁾은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이 자녀의 구강보건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¹³⁾은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조사하였고, 제갈영과 조수열¹⁴⁾은 도시와 농촌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을 비교조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정도과 행동을 조사하여 구강보건교육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한 곳을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한 후 임의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를 선택하였다. 4학년은 216명, 5학년은 210명, 6학년은 242명으로 총 668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후 2006년 6월 26일에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개별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27일 회수하였다. 이들이 응답한 질문지는 총 532명으로 응답률은 80%이었으나 한 문항이상 미기재한 설문지 42부를 제외한 490부를 분석대상으로 채택하였다.

2. 연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최 등⁷⁾이 사용한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설문지를 근거로 기존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구강보건지식은 불소에 관한 문항 7개와 치주질환에 관한 문항 7개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구강보건

표 1.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빈도(%)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192(41.0)
40~44세	256(52.2)
45세 이상	42(8.6)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4(0.8)
고졸	160(32.7)
대졸 이상	326(66.5)
어머니의 취업유무	
있다	270(55.1)
없다	220(44.9)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 있음	101(20.6)
보통	358(73.1)
어려움	31(6.3)
계	490(100)

행동은 하루 칫솔질 횟수,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등 총 3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구강보건지식의 각 문항에 대해 정답자는 1점, 오답자는 0점을 부여하여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수가 0~4개, 5~9개, 10~14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저, 중, 고’ 3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신뢰도는 총 14문항이 동일한 차원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인가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Cronbach의 신뢰도계수 0.66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어머니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포, 어머니들의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동은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어머니들의 구강보건지식의 평균은 T-검정을 통해 알아보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과 구강보건행동, 어머니들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은 Chi-square 검정법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39세 이하 192명(41.2%), 40~44세 256명(52.2%), 45세 이상 42(8.6%)로 40~44세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4명(0.8%), 고졸 160명(32.7%), 대졸 이상 326명(66.5%)으로 대졸 이상이 과반수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취업유무는 있다 270명(55.1%), 없다 220명(44.9%)으로 취업해 있는 사람이 취업하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여유 있음 101명(20.6%), 보통 358명(73.1%), 어려움 31명(6.3%)으로 보통이 가장 많았다(표 1).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문항별 분포는 3문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은 정답자수가 훨씬 많았고, 구강보건지식의 평균은 불소지식이 만점 7점에서 3.53점이며, 치주질환지

표 2-1.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에 대한 문항별 분포

단위: 명(%)

구분	정답자	오답자	모른다
불소는 치아 외피층을 강하게 하여 충치에 잘 안 걸리게 한다(O)	407(83.1)	26(5.3)	57(11.6)
불소는 치태(플라그)가 치아에 붙어있는 곳을 알려준다(X)	253(51.6)	92(18.8)	145(29.6)
불소는 치아를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X)	183(37.3)	240(49.0)	67(13.7)
불소는 입안의 세균수를 감소시킨다(O)	331(67.6)	90(18.4)	69(14.1)
불소는 치아의 색깔을 하얗게 만든다(X)	329(67.1)	82(16.7)	79(16.1)
불소는 치아와 뼈에 중요한 영양소이다(O)	83(16.9)	308(62.9)	99(20.2)
불소는 초기상태의 충치가 회복되도록 돕는다(O)	146(29.8)	251(51.2)	93(19.0)
성인이 되어 치아를 빼게 되는 것은 잇몸병보다 충치 때문이다(X)	234(47.8)	211(43.1)	45(9.2)
치주질환이 심해지면 치아주변의 골조직까지 망가진다(O)	430(87.8)	25(5.1)	35(7.1)
칫솔질과 칫솔사용은 충치예방보다 잇몸병예방에 더 중요하다(O)	223(45.5)	179(36.5)	88(18.0)
잇몸병의 원인은 치태, 즉 플라그이다(O)	324(66.1)	73(14.9)	93(19.0)
치주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이다(X)	243(49.6)	110(22.4)	137(28.0)
치주질환은 약국에서 사먹는 잇몸약으로 예방이 된다(X)	351(71.6)	53(10.8)	86(17.6)
칫솔질시 피가 나는 것은 치주질환의 초기증상이다(O)	394(80.4)	40(8.2)	56(11.4)

식은 만점 7점 중 4.48점으로 전체 14점 중 8.02점이었다. 그리고 구강보건지식수준에 따라 각각 ‘저, 중, 고’ 3개의 집단으로 나뉘면 ‘저’는 38명(7.8%), ‘중’은 318명(64.9%), ‘고’는 134명(27.3%)으로 ‘중’이 가장 많았다(표 2).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의 분포를 보면 하루 칫솔질 횟수는 ‘1회’ 7명(1.4%), ‘2회’ 180명(36.7%), ‘3회 이상’ 303명(61.8%)으로 ‘3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0회’가 가장 많았고 ‘1회’ 124명(25.3%), ‘3회 이상’ 96명(19.6%), ‘2회’ 83명(16.9%)의 순이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예’ 267명(54.5%)으로 ‘아니오’(45.4%)보다 더 많았다(표 3).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5세 이상 32명(76.2%), 40~44세 170명(66.4%), 39세 이하 116명(60.4%)의 순으로 모두 ‘중’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3명(75.0%), 고졸 109명(68.1%), 대졸이상 206명(63.2%)의 순으로 모두 ‘중’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있다’ 176명(65.2%), ‘없다’ 142명(64.5%)으로 ‘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어려움 23명(74.2%), 여유 있음 65명(64.4%), 보통 230명(64.2%)의 순으로 모두 ‘중’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루 칫솔질 횟수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118명(61.5%), 40~44세 166명(64.8%)으로 3회 이상이 높았으며 45세 이상은 23명(54.8%)으로 2회가

표 2-2.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도

구분	항목수	평균±표준편차
불소 지식	7	3.53±1.31
치주질환 지식	7	4.48±1.63
계	14	8.02±2.36

표 3.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

단위: 명(%)

구분	빈도(%)
하루 칫솔질 횟수	
1회	7(1.4)
2회	180(36.7)
3회 이상	303(61.8)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0회	187(38.2)
1회	124(25.3)
2회	83(16.9)
3회 이상	96(19.6)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예	267(54.5)
아니오	223(45.5)
계	490(100.0)

표 4.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

단위: 명(%)

구분	구강보건지식정도		
	저	중	고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17(8.9)	116(60.4)	59(30.7)
40~44세	20(7.8)	170(66.4)	66(25.8)
45세 이상	1(2.4)	32(76.2)	9(21.4)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0)	3(75.0)	0
고졸	15(9.4)	109(68.1)	36(22.5)
대졸 이상	22(6.7)	206(63.2)	98(30.1)
어머니의 취업유무			
있다	21(7.8)	176(65.2)	73(27.0)
없다	17(7.7)	142(64.5)	61(27.7)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 있음	1(5.0)	65(64.4)	31(30.7)
보통	29(8.1)	230(64.2)	99(27.7)
어려움	4(12.9)	23(74.2)	4(12.9)
계	38(7.8)	318(64.9)	134(27.3)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2명 (50.0%), 고졸 95명(59.4%), 대졸 이상 206명 (63.2%)의 순으로 3회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1$). 취업유무로는 취업한 어머니가 182명(67.4%)으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121명

표 6.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단위: 명(%)

구분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0회	1회	2회	3회 이상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72(37.5)	48(25.0)	32(16.7)	40(20.8)
40~44세	99(38.7)	63(24.6)	43(16.8)	51(19.9)
45세 이상	16(38.1)	13(31.0)	8(19.0)	5(11.9)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2(50.0)	0	2(50.0)	0
고졸	67(41.9)	36(22.5)	20(12.5)	37(23.1)
대졸 이상	118(36.2)	88(27.0)	61(18.7)	59(18.1)
어머니의 취업유무				
있다	96(35.6)	74(27.4)	44(16.3)	56(20.7)
없다	91(41.4)	50(22.7)	39(17.7)	40(18.2)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 있음	32(31.7)	29(28.7)	19(18.8)	21(20.8)
보통	141(39.4)	88(24.6)	63(17.6)	66(18.4)
어려움	14(45.2)	7(22.6)	1(3.2)	9(29.0)
계	187(38.2)	124(25.3)	83(16.9)	96(19.6)

(55.0%)에 비해 하루 칫솔질 횟수 3회 이상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 224명(62.6%), 여유 있음 63명(62.4%), 16명(51.6%)의 순으로 모두 '3회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5).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44세 99명(38.7%), 45세 이상 16명(38.1%), 39세 이하 72명(37.5%)순이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2명(50.0%), 고졸 67명(41.9%), 대졸 이상 118명(36.2%)의 순이며, 취업유무는 있다 96명(35.6%), 없다 91명(35.6%)이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어려움 14명(45.2%), 보통 141명(39.4%), 여유 있음 32명(31.7%)의 순으로 모두 '0회'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6).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연령은 구강위생보조용

품의 사용여부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은 사용하는 비율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유의하게 높았다($p < 0.01$). 취업유무는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130명(59.1%)이 취업한 어머니 137(50.7%)에 비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어려움 18명(58.1%), 보통 181명(50.6%), 여유 있음 68명(67.3%)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p < 0.01$) (표 7).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구강보건지식은 '저' 28명(73.7%), '중' 194명(61.0%), '고' 81명(60.4%)의 순으로 모두 하루 칫솔질 횟수가 '3회'로 가장 높았으며,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저'가 12명(31.6%)으로 '2회', '중'과 '고'는 각각 131명(41.2%), 45명(33.6%)으로 '0회'가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저'가 20명(52.6%)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

표 5.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루 칫솔질 횟수

단위: 명(%)

구분	칫솔질 횟수		
	1회	2회	3회 이상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2(1.0)	72(37.5)	118(61.5)
40~44세	5(2.0)	85(33.2)	166(64.8)
45세 이상	0	23(54.8)	19(45.2)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1(25.0)	1(25.0)	2(50.0)
고졸	3(1.9)	62(38.8)	95(59.4)
대졸 이상	3(0.9)	117(35.9)	206(63.2)
어머니의 취업유무*			
있다	2(0.7)	86(31.9)	182(67.4)
없다	5(2.3)	94(42.7)	121(55.0)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 있음	0	38(37.6)	63(62.4)
보통	5(1.4)	129(36.0)	224(62.6)
어려움	2(6.5)	13(41.9)	16(51.6)
계	7(1.4)	180(36.7)	303(61.8)

*p<0.05, **p<0.01

이 더 높았으나 ‘중’ 164명(51.6%)과 ‘고’ 85명(63.4%)은 사용하는 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p<0.05) <표 8>.

4. 고찰

구강질환은 대부분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개인의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은 개인이 터득한 구강건강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족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및 행동을 단면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아울러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 중 불소지식의 평균은

만점 7점에서 3.53점이며, 치주질환지식의 평균은 만점 7점 중 4.48점인 전체적으로는 만점 14점 중 8.02점이었다. 이는 우의 연구⁹⁾에서 불소지식의 평균 3.38±1.47점과 치주질환지식의 평균 4.25±1.48점보다는 높았고, 김 등의 연구¹¹⁾에서 전체 평균 8.81점보다는 낮았다. 그리고 Petersen 등¹⁵⁾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인 덴마크 어머니의 50%가 불소의 우식예방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는 본 연구보다는 낮은 결과로서 우리나라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수가 0~4개, 5~9개, 10~14개인 수준에 따라 각각 ‘저, 중, 고’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면 ‘중’이 64.9%로 가장 많았고, 이는 우의 연구⁹⁾에서 ‘중’이 가장 많은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의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하루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이 61.8%로

표 7.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단위: 명(%)

구분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예	아니오
어머니의 연령		
39세 이하	95(49.5)	97(50.5)
40~44세	148(57.8)	108(42.2)
45세 이상	24(57.1)	18(42.9)
어머니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3(75.0)	1(25.0)
고졸	75(46.9)	85(53.1)
대졸 이상	189(58.0)	137(42.0)
어머니의 취업유무		
있다	137(50.7)	133(49.3)
없다	130(59.1)	90(40.9)
주관적 경제상태**		
여유 있음	68(67.3)	33(32.7)
보통	181(50.6)	177(49.4)
어려움	18(58.1)	13(41.9)
계	267(54.5)	223(45.5)

* $p < 0.05$, ** $p < 0.01$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의 연구⁹⁾와 최 등⁷⁾의 연구 및 Petersen¹⁵⁾ 등의 연구에서 '2회 이하'가 가장 많은 것과는 상반되고 김 등¹¹⁾의 연구에서 '3회 이상'이 58.5%인 것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0회'가 38.2%로 가장 많았고, 이는 김 등¹¹⁾의 연구에서 35.5%로 '0회'가 가장 많은 것과 비슷한 결과이지만 Petersen¹⁵⁾ 등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37%가 치과 방문을 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사용자가 비사용자보다 더 많아 우의 연구⁹⁾에서 치실 사용자보다 비사용자가 많은 것과는 상반된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을 분석해 본 결과 모든 연령대와 교육수준은 '중'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renuga와 Sofola¹⁶⁾의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구강보건지식수준은 유의한 관련이 있

다는 보고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는 모두 '중'으로 '있다' 65.2%가 '없다' 64.5%보다 더 높았고, 주관적 경제상태는 모두 '중'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하루 칫솔질 횟수를 분석해 본 결과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와 40~44세에서는 3회 이상이 높았으며 45세 이상은 2회가 가장 높았고, 교육수준은 모두 3회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이 등¹³⁾의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칫솔질 횟수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칫솔질 횟수가 높았다는 결과와는 유사하다. 그러나 공 등¹²⁾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을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은 것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하루 칫솔질 횟수 '3회 이상'이 12.4%의 차이로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 등¹²⁾의 연구에

표 8.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

단위: 명(%)

구강보건행동	구강보건지식		
	저	중	고
하루 칫솔질 횟수			
1회	0	5(1.6)	2(1.5)
2회	10(26.3)	119(37.4)	51(38.1)
3회	28(73.7)	194(61.0)	81(60.4)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0회	11(28.9)	131(41.2)	45(33.6)
1회	11(28.9)	73(23.0)	40(29.9)
2회	12(31.6)	50(15.7)	21(15.7)
3회 이상	4(10.5)	64(20.1)	28(20.9)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			
예	18(47.4)	164(51.6)	85(63.4)
아니오	20(52.6)	154(48.4)	49(36.6)
계	38(100.0)	318(100.0)	134(100.0)

*p<0.05, **p<0.01

서 비취업 모친일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그러나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 62.6%, 여유 있음 62.4%, 어려움 51.6%의 순으로 모두 '3회 이상'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공 등¹²⁾의 연구에서 중간사회계층에 속할수록 칫솔질 빈도가 높다는 것과는 비슷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를 분석한 결과로서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등 모두에서 연간치과의료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취업한 어머니 35.6%가 비취업한 어머니 41.1%보다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가 낮게 나타나 공 등¹²⁾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를 분석한 결과 연령은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사용여부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으

며 중졸 이하, 대졸 이상이 사용하는 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취업유무는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고, 또한 주관적 경제상태도 여유가 있을수록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하루 칫솔질 횟수와는 모두 '3회'로 가장 높았으며,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고' 집단일수록 '0회'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Orenuga와 Sofola¹⁶⁾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36.7%가 구강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치과의사로부터 얻고 있으며,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구강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방문횟수가 많을수록 구강보건지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는 다른 맥락의 결과이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와는 '저' 47.4%, '중' 51.6%, '고' 63.4%로 사용하였고, 이는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사용하는 비율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정도과 행동을 조사하여 올바른 구강보건지식을 습득시키고 행동을 유도하고자 대구시내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한 곳을 편의추출법에 의해 선정한 후 임의로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개별자기 기입방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490부를 회수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지식은 대부분의 문항에서 정답자가 더 많았고, 전체 만점 14점 중 8.02점으로 다소 높았다.
2. 구강보건행동으로서 하루 칫솔질 횟수는 '3회 이상', 연간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0회',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은 비사용자에 비해 사용자가 더 많았다.
3. 구강보건지식은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모두 '중'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하루 칫솔질 횟수는 연령과 경제적 상태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았으며, 취업유무에서는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하루 칫솔질 횟수 3회 이상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는 연령, 교육수준, 취업유무,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연간치과의료기관을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유무에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에 비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에서 여유가 있을수록 더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였다.

7. 어머니의 구강보건지식은 하루 칫솔질 횟수와 연간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와는 관련성이 없었고,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는 구강보건지식이 높을수록 사용률이 더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구강보건지식은 칫솔질 횟수, 치과의료기관 방문횟수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구강건강행동과는 관련성이 없으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유무 등과 같은 구강건강증진행동과는 관련성이 있었다. 이에 보다 포괄적인 구강건강 예방행동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단순한 주입식의 구강보건지식을 교육하기보다는 행동을 유발시키는 실천적인 구강보건교육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복수 외 60인: 예방의학과 공중보건. 계축문화사 627-629, 1996.
2. 강영미 외 10인: 보건교육. 고문사 46-51, 1999.
3. 김두희, 이원식: 공중 보건학개론. 학문사 381-384, 1993.
4. Al-Omiri MK, AL-Wahadni AM: Oral health attitudes, knowledge, and behavior among school children in North Jordan. J Dent Educ 70(2): 179-87, 2006.
5. Rajab LD, Petersen PE, Bakaeen G, Hamdan MA: Oral health behaviour of school-children and parents in Jordan. Int J Paediatr Dent 12(3): 168-176, 2002.

6. 류경, 정성화, 김지영, 최연희, 송근배: 어머니의 구강보건행동과 지식이 자녀의 우식유치 실태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8(1): 105-115, 2004.
7. 최연희, 서일, 권호근, 지선하: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동과 자녀의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3(1): 45-61, 1999.
8. 심선주, 김종배, 백대일, 문혁수: 모친구강보건 지식이 유치우식증의 발생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7(3): 415-434, 2003.
9. 우승현: 어머니의 구강건강지식 및 행위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와의 관련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0. 최규범: 부모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이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1. 김영희, 송근배, 이성국: 어머니의 구강보건 지식 및 행동과 초등학생의 구강보건행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2): 83-92, 2002.
12. 공만석, 이흥수, 김수남: 모친의 구강보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1): 31-54, 1999.
13. 이재화, 나수정, 김진범: 대도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의 구강보건지식과 행동.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4): 509-529, 1996.
14. 제갈영, 조수열: 대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생 학부모의 구강보건지식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위생과학회지 7(2):109-117, 2001.
15. Petersen PE, Hadi R, Al-Zaabi FS, Hussein JM, Behbehani JM, Skougaard MR: Dent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Kuwaiti mothers and school teachers. J Pedod 14(3):158-164, 1990.
16. Orenuga OO, Sofola OO: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of antenatal mothers in Lagos, Nigeria about the primary teeth. Afr J Med Sci 34(3): 285-291, 2005.

Abstract

Study on Dent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s

Bun-Ja Chang

Dep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702-260, Korea

Key words: Knowledge, Behaviors, Dental Health, Mother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level of dental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 of mothers, health educators should encourage mother to have continuous dental care habits for lifelong dental health with practical education.

Method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490 mothers of four-year, fifth-year and sixth-year from elementary school in Daegu area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26, June to 27, June 2006.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to frequency and Chi-square test using SPSS 10.0 program.

Result: Firs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ere found between mothers, knowledge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age, degree of education, yes or no of occupation, subjective economy).

Second, mothers, number of toothbrush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degree of education, yes or no of occupation as over three times a day.

Thir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ere between visiting frequency of dental clinic for one year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age, degree of education, yes or no of occupation, subjective economy).

Fourth, yes or no of use in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degree of education, yes or no of occupation, subjective economy.

Fifth, mothers, knowledg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with auxiliary oral hygiene device.